

“교육으로 희망 찾겠다...미래사회인재 육성 온 힘”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신년회견 ‘2025 광주교육’ 정책 방향 발표

“학생들이 다양한 실력을 쌓아 광주교육의 본질이 되고, 미래사회를 이끌어가는 당당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습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6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2025 광주교육’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이 교육감은 “지난해 불법 계엄령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혼란의 연속에서도 우리 시민과 교육가족은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있다”며 “감감한 어둠 뒤에 반드시 밝은 해가 떠오르듯, 2025년 우리는 교육으로 다시, 희망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다양한 실력, 따뜻한 인성, 글로벌 기반 세계로, 디지털 기반 미래로 등 4대 영역에서 16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일반계 고등학교는 잠자는 아이들을 깨우는 정책을 심도있게 추진하고, 수학·과학 등 기초학문

교육을 강화해 ‘수포자 없는 학교’를 만들 계획이다.

광주출신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전국적 관심을 받았던 독서 프로젝트 ‘다시 책으로’는 ‘다시 책으로, 다 함께 책으로’로 확대 운영한다.

학생들이 따뜻한 인성을 갖추 수 있도록 생활교육과(가칭)를 신설한다. 새롭게 마련된 생활교육과는 인성교육, 마음건강, 심리정서상담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컨트를 타워 역할을 한다. 또 학생 인권·교권은 물론 학생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따뜻한 학교가 조성되도록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학생들의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꿈드림마’는 대상을 중3, 고3에서 중2-3, 고2-3학년으로 확대하고,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광주시와 함께 초·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 반액의 대중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학생들이 세계 곳곳을 경험하며 광주를 넘어 전 세계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는 올해도 지난해와 동일한 16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민과 함께 하는 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광주광역시교육청·시민협치진흥원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협력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또 AI팩토리 미래교실, 광주아이온(AI-ON) 등 미래교육 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학생 참여 중심 AI-SW교육을 더욱 활성화한다.

기후위기시대를 맞아 생태전환교육을 강화해 광주학생들이 생태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고, 등·하교·공기·수질·교실·운동장 등을 꼼꼼하게 점검해 안전한 교육 환경이 조성되도록 한다.

이정선 교육감은 “2025년 교육현장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2028 대입제도 개편, 디지털 교실 혁명 등 큰 변화의 바람이 예상된다”며 “국가적 세수결손으로 광주교육의 재정 여건 역시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럼에도 우리 교육청은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배움을 위한 교육활동에 그 어떤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양한 실력이 쌓여 교육의 본질이 되고,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6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2025 광주교육’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동강대 미디어콘텐츠과, 영상콘텐츠 제작 실무 능력 다재다능

공모전 출품작·다큐·광고 등 졸업작품 전시상영회 개최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 미디어콘텐츠과가 영상 콘텐츠 제작 실무 능력을 뽐내고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강대 미디어콘텐츠과(학과장 이상민)는 최근 보건관 3층 다산홀에서 제1회 졸업작품 전시상영회 ‘FIRST STEP’을 개최했다. <사진>

행사는 미디어콘텐츠과가 캡스톤 디자인 과목을 통해 제작한 졸업작품과 공모전 출품작, 개인 작품 등을 모아 감상했다.

1부 행사는 학과 동아리 ‘액션’이 직접 기획하고 촬영부터 연출, 편집까지 도맡은 전국 공모전 출품작과 학과 홍보 영상, 단편영화 등을 상영했다.

단편영화는 손경희(1년)씨가 프로듀서, 김재범(2년)씨가 촬영감독으로 참여한 ‘누가 아니라’와 2024년 광주독립영화제 상영작인 신환규(2년)씨의 ‘백일몽’이 선보였다.

특히 신환규 씨는 ‘백일몽’ 작품의 감독 뿐 아니



라 배우로도 출연해 다재다능한 끼를 맘껏 발산했다. 또 기관 및 지자체 주최 공모전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모전 등의 출품작과 수상작 등이 상영됐다.

2부 행사에서는 2학년 학생들이 제작한 광고, 예능, 뮤직비디오, 다큐멘터리, 브이로그 등의 다양한 콘텐츠 감상 시간을 가졌다. 이밖에도 학생들이 쓴 시나리오와 포트폴리오도 전시했다.

이상민 학과장은 “졸업전시 상영회를 통해 2년

간 열심히 실력을 쌓은 학생들의 걸음걸음을 느낄 수 있었고 미디어콘텐츠과의 자긍심을 높이는 자리가 됐다”고 격려했다.

한편 동강대 미디어콘텐츠과는 디지털 영상 콘텐츠 산업이 급성장하고 특히 ‘퍼스널 브랜딩(Personal Branding)’을 활용한 개인 미디어 분야가 각광받으면서 사회 트렌드에 발맞춘 경쟁력 있는 학교 운영에 나서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대 개교 45주년 “더 높게 비상...미래형 교육 다짐”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는 최근 호심관 소강당에서 교직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학교법인 호심학원 광주대학교 사무식’을 개최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는 단제 묵념으로 시작된 사무식에서 김동진 총장은 “광주대학교가 대내외 교육 환경과 시대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

한 성장을 일궈낼 수 있었던 것은 대학 구성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 노력해 준 덕택이다”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 총장은 또 “개교 45주년을 맞는 올해에도 발상을 전환하고, 말보다 실천하며 미지의 시도를 통해 각종 국책사업 선정과 미래형 교육을 선도하는 광주대학교로 비상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과 지

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장은 끝으로 “교직원 처우 개선을 통해 자긍심을 높이고, 대학의 설립 이념이 기업가정신을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사무식 본 행사에서는 2024년 발자취와 2025년 밴드 교직원의 포부를 담은 대학홍보영상 시청, 새해를 여는 명상, 새해 덕담을 나누는 전체 구성원 릴레이 악수에 이어 떡국으로 오찬을 함께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대-지스트,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

복지부, 10억 지원...의료AI·면역치료 프로그램 공동 개발

전남대학교와 광주과학기술원(지스트·GIST)이 의사과학자 연구생태계 개발 사업에 선정됐다.

전남대와 지스트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4년도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의사과학자 연구생태계 개발 사업’ 부문에 선정되어 1년간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전남대가 주관기관으로 지스트가 공동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의료인공지능과 면역치료를 특화된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게 된다. 컨소시엄의 명칭은 ‘MAXIMUM(Medical AI-X, Immunotherapy-based Innovative Medicine for Unmet Medical Needs)’이며, 의료의 미충족난제를 인공지능과 면역치료로 극복하는 첨단 융·복합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전남대와 지스트는 의학과 생명과학의 폭발적인 성장이 의학적 난제에 대한 과학적 해결 능력을 가진 의사 및 의학적 통찰력과 지식을 갖춘 과학자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 뜻을 모아 협업을 통해 신기술을 탄생시킬 예정이다. 따라서, 전남대 의대의 신진 교수, 전임의, 전공의를 미래의 의사과학자로 양성하기 위해 지스트가 축적한 인공지능과 생명과학의 연구역량을 접목한다. 전남대 의대와 전남대병원은 의생명과학자들에게 관심 연구분야의 의학적 실무 지식을 전수한다.

특히, 두 대학은 공동학위제를 도입하고 의사들에게는 최고 수준의 과학적 학습과정, 과학자에게는 고도의 의학적 학습과정을 제공할 예정이며,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의사과학자 후보들은 스탠퍼드대, 피츠버그대, 하버드 의대 등의 선진 의사과학자 양성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의 연구책임자인 민정준 화순전남대병원장은 “MAXIMUM 사업단은 전남대의과대학이 본격적으로 시도하는 의사과학자 양성 프로그램으로 우리 대학의 미래를 이끌어갈 의사과학자 양성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며, “대학과 병원이 자질을 갖춘 젊은 의사를 의사과학자로 성장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과 수련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선정작업에서 9개의 컨소시엄을 심사하여, 전남대-지스트, 서울대-카이스트, 카톨릭대-포항공대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했다.

한편, 2024년도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은 ‘바이오메디컬 분야의 혁신을 이끌 융합형 글로벌 혁신인재 육성’을 목표로 바이오헬스 분야에 특화된 의사과학자 양성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의사과학자 양성 단계별 수준을 고려한 글로벌 협력사업 발굴·인력교류 기회 및 진로 유인 확대를 기본 방향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문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북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